



서울 행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28954 제재조치명령의취소
 원 고 재단법인 시민방송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에이스테크노8차 404호 (구로동)
 대표자 이사 민경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민영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최성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성근, 조춘, 이덕구, 이해리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게 한 각 제재조치명령(방송심의 제2013-225호, 방송심의 제2013-226호)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시청자 제작) 전문 텔레비전 채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방송

1) 원고는 2013. 1. 21. 22:00 ~ 22:55, 2013. 1. 22. 16:00 ~ 16:55, 2013. 1. 23. 09:00 ~ 09:55, 2013. 3. 2. 22:00 ~ 22:55, 2013. 3. 3. 16:00 ~ 16:55 등 29회에 걸쳐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1 방송'이라고 한다). 이 사건 1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13. 1. 26. 23:00 ~ 23:45, 2013. 1. 27. 17:00 ~ 17:45, 2013. 1. 29. 16:00 ~ 16:45, 2013. 3. 2. 23:00 ~ 23:45, 2013. 3. 3. 17:00 ~ 17:45 등 26회에 걸쳐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플레이저 보고서(제1부)'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2 방송'이라고 한다). 이 사건 2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



방송출력관리

지 2 기재와 같다.

다. 제재조치 명령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방송이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심의규정'이라고 한다) 중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및 명예훼손 금지에 관한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하였다(방송심의 제2013-225호, 방송심의 제2013-226호, 이하 이 사건 1 방송에 관한 제재조치를 '이 사건 1 처분', 이 사건 2 방송에 관한 제재조치를 '이 사건 2 처분'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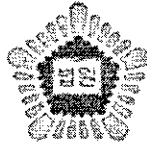
■ 이 사건 1 방송에 관하여

[주 문]

1. 원고에서 방송된 이 사건 1 방송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한다.
2. 원고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의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고지방송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이하 위 항의 내용을 '이 사건 1 고지방송명령'이라고 한다).

가. 고지방송 내용

#1	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피고 결정사항 고지방송입니다.
#2	원고는 2013. 1. 26. 등에 방송된 이 사건 1 방송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및 제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원성출판등록번호

	따라 피고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4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원고는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고입니다.

나. 고지방송 방법

- 원고는 피고의 결정사항의 '고지방송 내용'을 4개의 전체화면(#1, #2, #3, #4)으로 나누어 음성과 자막(파랑바탕, 흰색글씨)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 1회 고지하여야 한다.
- 해당 프로그램 종료·폐지 또는 편성 조정 등으로 본방송 직전에 고지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프로그램 등의 방송 직전 1회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피고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피고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재 사유]

1. 심의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위반

○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선출과정 등을 1948년 미국 CIA 문서 등을 통해 분석하는 이 사건 1 방송에서,

①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CIA 문서, '이승만은 한인 학교에서 반일사상을 가르친다는 것을 부인했다'는 내용을 호놀룰루 스타블러틴 신문, '(이승만 기자회견) 한일합방 후 3년도 지나기 전에 한국은 낡은 인습이 지배하는 느림보 나라에서 활발하고 떠들썩한 산업경제의 한 중심으로 변모했다'고 운운하는 내용의 워싱턴포스트 기사, '(이승만이 재정문제를 제기한 국민회 대의원들을 폭동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통곡할 재판사건, 5천명 동포가 모두 망신이로다'라는 내용의 신한민보 기사 등을 인용하였고,

② "이승만과 관련되는 수많은 충돌은 다 돈과 관련이 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미주지방 성금을 딱 끊어버렸는데, 정치권력에서 헤게모니를 질 수 있다는 이승만다운 발상이다"라고 운운하는 서중석 교수의 인터뷰, "미국사람들과 거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는데 하버드에 석사를 달라고 했다. 일본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 손끝이 시리다고 한 것은 독립투사로서의 이





유성준적용비고

미지를 만드려는 시도였고,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라고 운운하는 주진오 교수의 인터뷰, “(임시정부의 독립성금을 장악했다며) 그것은 이승만의 본능이나 본성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운운하는 정병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미국 입장의 사료와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만을 인용하거나,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인 학자들의 인터뷰 내용만을 방송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였다.

○ 이승만 대통령의 재테크, 사생활, 외교노선 등에 대하여,

① 이승만이 재정문제를 제기한 국민회 대의원들을 경찰에 폭동죄로 고발하고, 하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들은 박용만 패당이며 미국 영토에 한국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반일 행동을 하며, 일본 군함 이즈모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는 음모까지 꾸민 무리들입니다. 판사님, 저들을 조처해주십시오”라고 증언했다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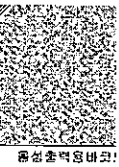
② 이승만의 재테크 방법에 대해, “(내레이션) 피 튀기는 테러까지 동원하여 국민회를 장악하고 현란한 부동산 재테크에 착수했다”라며, 여학생 기숙사 건립기금 및 국민회 재산 등을 담보로 돈을 챙기고 국민회 재산을 전부 매각해 목돈을 챙겼다는 내용,

③ 이승만과 김노디의 사진을 패러디로 합성하고, “(내레이션) 나이 마흔 여섯에 스물두 살짜리 여대생과 여행도 하고 틈만 나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잤다. 백인 여자들에게도 접근해 재벌 2세처럼 최고급 식사를 사주며 데이트를 즐겼다. 미국 수사관들은 그를 기소해버렸다”라고 운운하는 내용,

④ 이승만이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독립운동 전략으로 “우리 형편상 전쟁준비는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국내외 일반 국민들은 각자 직업에 종사하며 여가시간에 병법을 연마하라. 무기도 각자 구하라. 그러다 좋은 시기가 오면 일제히 나가서 싸우라”라고 발표했고, 독립운동가 이봉창·윤봉길의 의거 등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짓들 좀 작작해라. 독립운동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라고 충고하였다는 내용,

⑤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맥아더를 향해 러브레터를 썼다며 “(이승만) 저희는 대일전에 참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나쁜 소련의 방해로 좌절되었어요”, “(내레이션) 물론 소련은 방해한 적이 없으나 맥아더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약간의 거짓말을 좀 섞었다”, “(이승만) 미국이 단독으로 한국을 점령해주세요. 전 소련이 싫어요”라고 운운하는 내용,

⑥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이승만을 저항세력(여운형, 김규식, 김구 등)과 비교하면서 외교 정책 등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독립운동자금 장악과정과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의 행적 등을 설명하면서 이승만을 부도덕한 인물로만 묘사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



공정선거관리위원회

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

2. 심의규정 제9조 제2항 위반

○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나 긍정적인 평가자료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소개 없이,

① 미국 CIA 문서 일부를 인용하여, 이승만을 사적인 권력욕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묘사하는 내용,

② 단기간에 거래를 통해 하버드 석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프린스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내용,

③ 이승만이 손가락 끝에 입김을 부는 행동은 실제 일본에 의해 고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독립투사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

④ 이승만이 독립운동자금을 장악하기 위해 하와이 깡패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며, 이는 이승만의 본능이나 본성에 가까운 행동이었다는 내용,

⑤ 이승만이 여대생 김노디와 여행을 하다가 '부도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자를 데리고 주경계선을 넘으면 불법이다'라는 MANN 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하였고, 백인 여성들과 호화 데이트를 즐겼다는 내용,

⑥ 이승만이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을 단독으로 점령해 달라는 내용의 러브레터를 노골적으로 보냈다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평가를 하여,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3.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 위반

○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평가하면서,

① "(주진오 교수) 세상에 제가 만약에 나 여기서 박사를 받는데 아직 거기 석사를 마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지",

② "(내레이션, 이승만의 워싱턴포스트 기자회견에 대해) 이승만의 말은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똑같다. 이 사건만 본다면 그는 한국이 독립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악질 친일파다",

③ "(내레이션, 하와이 시절 이승만에 대해) 이승만, 그는 사이비 기독교인이었던 모양이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피 튀기는 테러까지 동원하며 국민회를 장악했다. 십계명도 어기며 현란한 재테크에 착수했다. 이것이 하와이 갱스터의 재테크 비결이



방송통신위원회

다”,

④ 재정문제를 제기한 국민회 대의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내레이션) 이승만의 이런 행동은 자기 조국에 대한 명백한 반역행위 아닌가?”, “(자막) 반역자 BETRAYER, 이승만 A Class Collaborator, A급 민족반역자”,

⑤ “(내레이션, 독립운동성금 장악에 대해)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하와이 강패의 본색을 드러내며 정부에서 걷은 돈도 전부 넘기라고 요구했다”,

⑥ “(내레이션, 김노디와 부적절한 여행을 했다며) 결국 미국 수사관들은 이승만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했던지 그를 기소해버렸다”,

⑦ “(내레이션, 이승만의 독립운동 전략에 대해) 대체 왜 이승만은 이런 돌대가리 같은 전략을 내놓은 걸까?, 그 이유는 역시 돈과 관련이 있다”,

⑧ ‘(자막, 이승만에 대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발언) 저런 썩은 대가리와 함께 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방송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독립투사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여대생 및 백인 여자들과 데이트를 즐기며, 독립자금을 횡령한 인물로 묘사하면서,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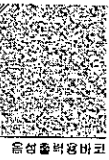
■ 이 사건 2 방송에 관하여

[주 문]

1. 원고에서 방송된 이 사건 2 방송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한다.
2. 원고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의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고지방송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이하 위 항의 내용을 ‘이 사건 2 고지방송명령’이라고 한다).

가. 고지방송 내용

#1	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피고 결정사항 고지방송입니다.
#2	원고는 2013. 1. 26. 등에 방송된 이 사건 2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3	<p>이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및 제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p>
#4	<p>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원고는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원고입니다.</p>

나. 고지방송 방법

- 원고는 피고의 결정사항의 '고지방송 내용'을 4개의 전체화면(#1, #2, #3, #4)으로 나누어 음성과 자막(파랑바탕, 흰색글씨)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 1회 고지하여야 한다.
- 해당 프로그램 종료·폐지 또는 편성 조정 등으로 본방송 직전에 고지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프로그램 등의 방송 직전 1회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피고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피고에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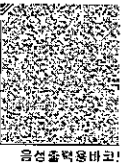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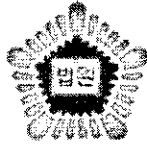
[제재 사유]

1. 심의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위반

○ 박정희 대통령의 대외 활동, 한국경제 성장의 원인 등을 1978년 미국 의회에 보고된 프레이저보고서 등을 통해 분석하는 이 사건 2 방송에서,

'한국의 중장년층은 박정희가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지만, 박정희는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의 프레이저보고서 및 비밀이 해제된 미국 기밀문서, '박정희가 해방 후에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는데,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는 내용의 미국 기밀보고서, '박정희의 화폐개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멍청한 짓이었다'는 내용의 보고서 등 **미국 입장의 사료와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 내용만을 인용하여 방송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였다.**

○ 박정희 대통령의 외교, 경제정책 등에 대하여,



음성출력용바코드

① 일본에 원조요청을 하러간 박정희가 일제 때 천황의 군인들을 양성했던 나구모 장군에게 고개를 숙이며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언급한 뒤, 일본어로 “혁명을 했을 때 일본 명치유신의 지사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명치유신의 지사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는 내용,

②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정책에 의해 한국이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수정되었다며, “(내레이션) 결국 박정희는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박정희, 결국 그는 미국의 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마침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이 전부 들어간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도를 받는 수출 주도형 개발전략으로 전환됐다”라고 운운하는 내용,

③ 박정희가 한국 경제성장의 성과를 자신에게로 돌렸다면, “(내레이션) 박정희는 기자들을 전부 불러 모았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손가락을 휘두르고 노동자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수출을 통해 조국이 무섭게 성장하는 모습을 본 한국인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박정희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운운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한국 경제가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정책에 의해 수출주도형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박정희를 경제성장의 업적을 가로챈 인물로만 묘사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

2. 심의규정 제9조 제2항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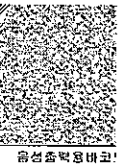
○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이나 긍정적인 평가자료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소개 없이,

① 프레이저 보고서와 부정적인 일부 내용만을 인용하여, 박정희가 주도적인 정책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제성장의 성과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는 내용,

② 반공정책을 보여주기 위해 무고한 언론인 조용수에게 누명을 씌어 사형판결을 내렸다는 내용,

③ 박정희가 일본의 정치인들 및 조선 침략의 선봉장들인 명치유신의 인사들에게 존경심을 표했고, 이에 일본이 박정희와 손을 잡고 한국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박정희 정권에 검은 돈을 주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대일 무역 적자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됐다는 내용,

④ 박정희의 조카사위인 김종필이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정치자금을 모두 박정희에게 상납했고, 박정희의 화폐개혁 실패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만으



음성출력용바코드

로 평가를 하여,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3.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 위반

○ 박정희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평가하면서,

① "(내레이션) 박정희가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라는 것이다.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는데,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군들은 박정희를 뱀 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 박'이란 별명을 붙였다"라며, 박정희의 사진과 '뱀 사진'을 나란히 노출하고, 자막으로 'SNAKE PARK(스네이크 박)'이라고 표시하는 내용,

② 박정희가 무고한 언론인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다면 "(내레이션) 박정희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며 자신이 얼마나 과격하게 반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③ 박정희가 일본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다면, "(내레이션) 친일파 박정희와 손을 잡고 한국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한 일본은 박정희 정권에 검은 돈을 주기 시작했다",

④ "(내레이션, 박정희의 조카사위 김종필이 주가를 조작했다며) 김형욱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김종필이 끌어모은 돈의 일부는 박정희에게 상납됐고, 공화당 장당 작업, 야당 교란작전에 쓰였다고 한다", '(자막, 박정희의 화폐개혁이 실패했다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라고 운운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동료들을 밀고해 살아남았다거나 무고한 언론인을 재판을 통해 살해했고, 일본 침략주의자들로부터 검은 돈을 받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자금을 모았으며, 경제성장의 공로를 가로챈 인물로 묘사하면서,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재심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6항에 따라 피고에게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음성출력용바코드

2. 이 사건 각 고지방송명령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재조치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고지방송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각 고지방송명령은 이미 법률상 고지방송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권고하는 것일 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지방송명령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방송법 제100조 제4항은 방송사업자가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피고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피고로부터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② 다만, 피고는 방송사업자들의 결정사항전문 방송의무를 감경하여 주고 방송사업자들에게 동일한 방송시간을 할애하여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상 결정사항전문을 요약하여 통일된 형태의 고지방송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지방송명령'의 형태로 통지한 후 방송사업자들이 피고가 고지방송명령에서 정한 내용과 방법으로 고지방송을 한 경우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점(이에 대해 피고는 고지방송의 내용과 방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방송사업자는 이에 따르지 않고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각 처분서(갑 제1호증의 1, 2) 중 제4항에 '위 제재조치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고지방송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고지방송명령은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결정사항전문 방송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게 고지방송의 내용과 방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지방송명령은 제재조치명령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서(갑 제1호증의 1, 2)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권고에 불과하여 별도의 처분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제재조치명령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고지방송명령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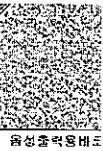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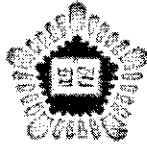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서 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심의규정 제61조 제9항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견진술'과 관련한 절차를 준용하라는 취지이지 의견진술을 할 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조에서 정한 대리인에 이 사건 각 방송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 직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의견진술절차에 행정절차법 제2조가 준용된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방송의 제작자측의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원고의 의



방송통신위원회

견진술을 막은 것과 동일하므로 위법하다.

2) 방송법상 공정성과 객관성의 심의대상에 관하여

방송법 제6조 제1항은 방송에 의한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2항에서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 '방송광고의 공정성·공공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방송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방송법은 방송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심의대상을 '보도 및 논평'과 '방송광고'에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심의규정 제9조와 제14조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는 범위를 방송 일반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은 방송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방송은 역사다큐멘터리로 '보도 및 논평', '방송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상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3)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각 방송은 비교적 덜 알려진 사실을 조명함으로써 역사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목적 하에 제작된 점,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기계적 중립이나 산술적 평균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확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역사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자유롭게 교류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방송은 검증된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사실로 구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였다거나,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의규정 제9조 제1항, 제1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나) 역사적 인물에 관한 내용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하여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설령 일부 저속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해당하므로, 심의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퍼블릭 액세스 채널에는 일반 방송에 관한 심의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처분보다 경미한 처분으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¹⁾

1)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가 피고에게 사전의견진술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방송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측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방송법 제100조 제5항, 심의규정 제61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때에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이 사건 각 고지방송명령이 처분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고지방송명령은 별도의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제재처분으로만 구성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만을 검토한다.



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의규정 제61조 제9항에서는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족문제연구소의 직원은 행정절차법 제2조 및 제12조에서 정하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방송을 편성·방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에 관한 자료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피고가 원고 외에 별도로 제작자측의 의견진술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민족문제연구소측에서는 원고를 통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처분의 목적은 이 사건 각 방송을 '방영'한 것에 있는 것이지 이 사건 각 방송 자체 내지 제작에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때 미리 민족문제연구소측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방송법상 공정성과 객관성의 심의대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방송법 제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제33조 제1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심의규정에 포함되어 할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위임한 것이지, 객관성과 공정성



원고출력용비고

의 심의대상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에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의 의견을 형성하고 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회를 운영하는 정치제도이므로,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은 국정참여를 위한 정보수집권으로서 알 권리를 가지는데,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부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언론은 개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 중에서도 특히 방송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여론형성에 참여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은 같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있어서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독점하고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매체는 음성과 영상을 통하여 동시에 직접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조작이 가능하며, 방송매체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이 증가하여 방송이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은 신문 등 인쇄매체보다 높다(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결정 2002헌바



49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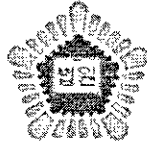
이에 따라 방송법 제6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1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및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심의규정 제9조 제1항은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방송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규정 제14조는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은 방송이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1 방송 부분

(1)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방송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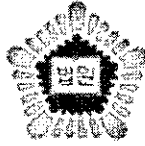
(가) 이 사건 1 방송은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진정한 독립운동가였는지에 관하여 특정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의혹을 제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13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삽입하여 이를 토대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쟁점	방송 요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 및 방송의 문제점
1	미국에서의 박 사학위 취득	이승만의 실력이 아니라 미국 기독교의 지원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의 밀사자격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조선의 독립을 도와 줄 것을



음성출력용바코드

	<p>경위</p>	<p>으로 가능했다.</p>	<p>요청하기위해 미국에 가게 된 내용 및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이 여러 책에서 인용 될 정도로 우수한 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p>
<p>2</p>	<p>친일로 오해할 만한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 관 - 호놀룰루 스타블러틴</p>	<p>○ 이승만은 기회주의자이며 악질 친일파이다.</p> <p>○ 호놀룰루 스타블레틴지 기사 내용 : 우리 학교에서는 일본을 비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반일 감정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일본 신문들은 나에게 대해 오해를 하지 말길 바란다. 오해는 빨리 풀수록 좋다.</p>	<p>○ 호놀룰루 스타블레틴지 기사 내용 : (다른 해석) 우리 하와이 한인학교는 일본인에 대한 증오를 일체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학교선생님들은 어느 특정 인종 혹은 민족에 대한 증오를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세계 시민적인 사람, 철저한 코스모폴리탄이다.</p> <p>: (방송에서 인용되지 않은 마지막 부분) 만약 본토에 사는 일본인, 혹은 해외에 사는 일본인들이 진정으로 한국인과 친근하게 지내길 원한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생명, 자유, 행복에 관한 원천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p>
<p>3</p>	<p>하와이 교민사회의 갈등과 일본 군함 '이즈모호 사건'</p>	<p>○ 이승만이 살인 미수범 증인으로 재판정에 들어가서 체포된 대의원들을 모함하는데 그들이 박용만의 패당이며, 미국 영토에 한국 국민군단을 설립하고 위험한 배일 행동으로 일본 군함 이즈모호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고 음모하고 있는 무리들이며 이것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중대 사건을 일으켜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이니 저들을 조처하여야 한다.</p> <p>○ 근거: 박용만의 '시</p>	<p>박용만, 김원용의 주장을 기재한 책을 근거로 하였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p>



동성출력공비국

		국소감, 김원용의 '재미한인오십년사'	
4	이승만과 김노디의 Mann 법 위반 문제	미국 수사관들은 이승만을 부도덕한 플레이 보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와의 이민국 소속 RICHARD HALSEY의 보고서의 내용 -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저는 이승만과 노디김에게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로서 대하는 것이 저의 직업상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에 관한 의심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이승만에 대한 CIA문서의 평가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사건 1 방송에서 발췌된 부분의 앞, 뒤 문장과 함께 해석할 경우] 그러나 그는 한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도 가장 이익이 되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그의 마음 속에서는 그 자신이 곧 한국인 것처럼 생각했다. 이승만은 <u>한국의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평생을 바쳤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u> 그는 이러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자신의 성취를 위해 <u>활용할 마음이 있는 세력들이 누구지에 관하여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u> 단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그는 절대로 공산주의자들과는 손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승만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반공주의의 상징이 된 이유를 설명해준다.

(나) 이 사건 1 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위한 근거가 되는 에피소드의 사실관계는 역사학자마다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에 관한 사실관계나 그에 대한 평가는 근거 자료 내지 역사관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될 수 있는바,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존의 역사적 통설에 대한 반대견해는 물론 덜 알려진 사실을 조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음성출력용비코

(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위인에 관하여 재조명을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에 기하여 해당 사실만을 중립적으로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및 편집기술을 통하여 사실관계와 평가를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시켜 그 위인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것은 그 위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1 방송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없이 부정적인 사례(기사 등)와 평가(역사학자의 인터뷰 등)만으로 구성하고, 제작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하였다(역사적 위인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조명은 역사관에 따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에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그 불균형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방송의 기획의도와 참여프로그램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이 사건 1 방송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에피소드의 근거가 된 자료 중 일부가 이승만 대통령과 적대적이었던 사람들(김원용 등)의 저서이어서 그 자체로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근거로 마치 그 사실관계를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방영하면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자료 및 관점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또한 신문 기사, 보고서 등 자료 전체를 함께 볼 경우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제작의도에 부합하는 일부만 발췌하여 그 부분만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방영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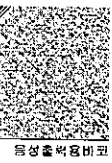
공정출력용비고

하였고, Mann 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기소되었다고 하는 등 자료 내용과 달리 이승만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하여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사실관계가 아닌 추측이 가미된 부분도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재구성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이해를 위하여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사진을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편집하여 삽입하기도 하였고, 해당 사실관계로부터 곧바로 추론될 수 없음에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PLAY BOY, 하와이 캅페, 돌대가리, 썩은 대가리'라고 단정적이고 저속한 평가를 삽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으며 동시에 사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독립투사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여대생 및 백인 여자들과 데이트를 즐기며, 독립자금을 횡령한 인물로 묘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이 사건 1 방송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려는 이 사건 1 방송의 목적은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방송의 구성, 내용, 편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방송은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





적으로 조장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있다.

다) 이 사건 2 방송 부분

(1)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방송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2 방송은 '누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는가'라는 제목 하에 'Chapter 1. 케네디의 남자들, Chapter 2. 압압한 사무라이들, Chapter 3. 수출주도형 국가의 탄생, Chapter 4. 채찍과 당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방송 요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
1	박정희가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 시행한 5. 16. 혁명의 내용과 그 이후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박정희가 노브스케를 만나 "혁명을 했을 때 일본 명치유신의 지사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명치유신의 지사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박정희는 조선을 침략한 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 말은 일본의 근대화를 존경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	결국 박정희는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 이제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경제정책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침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이 전부 들어간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도를 받는 수출 주도형 개발전략으로 전환됐다	별지 3 표 참조

(나) 이 사건 2 방송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없이 특정 자료(프레저 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하고, 제작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에 관한 업적)은 의도적으로 배제함으





음성출력용비고

로써 사실을 왜곡하였고, 동시에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 불균형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 방송의 기획의도와 참여프로그램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특히, 이 사건 2 방송이 근거로 삼는 프레이저 보고서는 그 작성의 목적이 한국의 객관적인 경제성장의 원인, 과정 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집단(미국)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위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경제성장의 업적에 관한 평가를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2 방송은 한국 경제가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정책에 의해 수출주도형으로 전환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경제성장의 업적을 가로챈 인물로 단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평가의 근거가 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근면한 국민, 정부의 효과적인 이행, 미국과 한국간의 협동을 원인으로 꼽는 등 이와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제작의도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마치 그 부분만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방영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 반대한 중화학공업과 사회기간시설을 구축하기도 한 사실 역시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또한 편집기술과 추측을 가미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동료들을 밀고해 살아남았거나 무고한 언론인을 재판관을 통해 살해한 것처럼 오인되게 사실관계를 구성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이해를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SNAKE PARK'으로 표현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뱀 사진과 나란히 편집한 사진 및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표현한 사진 등



음성출력용비고

을 삽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돈케 하였으며, 사자인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시킬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려는 이 사건 2 방송의 목적은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방송의 구성, 내용, 편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 방송은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있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언론의 자유, 퍼블릭 액세스 및 국민의 알권리의 침해가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방송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토대가 되는 민주적 여론형성에 참여하는 언론매체라는 점에서는 신문 등의 다른 매체들과 그 기능이 같다. 하지만 방송은 공공의 소유이자 희소자원인 전파의 독점적 사용을 전제로 허가된 매체라는 특성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 기술적, 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소수의 방송사가 매체를 독점하고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로서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수신장치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누구라도 쉽게 방송에 접근할 수





음성중력음바조

있고, 방송매체는 음성과 영상이 동시에 수신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이 있으며, 신뢰도가 다른 매체에 비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방송매체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이 증가하여 방송이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방송의 공적 기능, 공정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 및 규제의 필요성은 신문 등 인쇄매체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다.

나)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방송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수신자(시청자)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 및 공적 기능 때문이고,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및 공공성, 공적 책임의 준수 등이 요구된다.

다) 최근에는 매체산업과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이른바 '다미디어·다채널'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술적 측면에서의 방송매체독점의 요인은 점점 사라져 가는 추세이고, 따라서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임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상태이다.

라) 이 사건 각 방송은 특정 자료만(CIA 보고서, 프레이저 보고서 등)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전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하






였고, '전체 관람가'로 2달에 걸쳐 약 55회 방영되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마) 피고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유사 사례에서 '해당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왔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이 그 사례들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한 제재라고 보이지 않는다.

바) 퍼블릭 액세스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방송법상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에 대한 책임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행전	<u>차행전</u>	
	판사	조현욱	<u>조현욱</u>	
	판사	김혜성	<u>김혜성</u>	





별지 1

자막 : 이승만의 인격, 첨부파일 A

- 내레이션 : 이 문서에 '이승만의 인격'이라는 파일이 존재한다. 여기에 충격적인 얘기가 적혀있다.

자막 :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며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 내레이션 : 만약 이게 진실이라는 독립 운동 세력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운명이 위험하다. 이승만... 그는 정말 출세를 위해 모르는 사이비 독립운동가일까? 아니면 CIA가 잘못 판단한 것일까?

□ Part 1. 당신이 알지 못 했던 이승만의 모든 것 (Everything You didn't know about Syngman Rhee)

[방송화면] 서중석 교수 성균관대 사학과 인터뷰 영상

- 서중석 : 이승만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승만 그분한테 초기 사상 개화사상을 전달해준 분들, 가르쳐준 분들은 선교사였습니다. 미국 선교사, 그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방송화면] 이승만 탄생부터 성장 관련 자료

- 내레이션 :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이승만.

자막 : 황해도 출생, 1875

- 내레이션 : 그는 아주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자막 : 1세대 조선 기독교인, 1899

○ 내레이션 : 이 선택은 그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주었다.

자막 : 레이놀즈 선교사(William Reynolds), 언더우드 선교사(Horace Underwood),
게일 선교사(James Gale)

○ 내레이션 : 그 당시 미국 기독교계는 조선에 기독교를 널리 전파시켜줄 조선인 목사가 절실히 필요했다.

자막 : 특별생으로 편입, 조지 워싱턴 대학, 1905

○ 내레이션 : 이 사실을 잘 아는 이승만은 목회자가 되겠다는 서약을 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 특별생으로 편입되는 특혜를 받았다.

자막 : 하버드 대학, 1907

○ 내레이션 : 그리고 대학을 마치자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버드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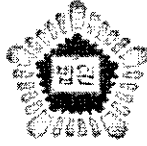
[방송화면] 주진오 교수,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인터뷰 영상

○ 주진오 : 하버드를 갔는데 거기서 결국 석사를 마치지 못했어요.

자막 : HISTORY 역사학 C, ECONOMICS 경제학 D

○ 주진오 : 가서는 뭐 도저히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프린스턴으로 옮기는데...

자막 : 프린스턴 신학대 교수(Charles Erdman, Professor of theology at PTS),
프린스턴 대학원장(Andrew West, Dean of the graduate school at
Princeton University)



음성출력용비

- 내레이션 : 이 과정에서도 미국 장로교의 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자막 : 석사학위 없이 박사과정 입학, 프린스턴 대학, 1908

- 내레이션 : 석사 학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박사 과정에 입학했고 게다가 2년 안에 박사 학위를 준다는 파격적인 보장을 받았다.

- 주진오 : 그는 미국 사람들과 다를 할 줄 알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걸 하죠. 그게 뭐냐면 하버드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막 : 제가 프린스턴 박사학위를 받으니 하버드에서 석사학위 줘 주세요

- 주진오 : 내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는데 하버드에서 나한테 석사를 달라. 그랬더니 하버드에서 뭐라고 하나면 그러면 계절 학기를 와서 한 과목을 들으면 석사를 주겠다.

자막 : 송만근! 계절학기 한 과목만 들어 그럼 석사학위 줄게

- 주진오 : 세상에 제가 만약에 나 여기서 박사 받는데 아직 거기 석사 마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지.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짓들을 할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기네 출신이 말하자면 한국의 원주민 교역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선례를 자기네 학교 출신으로 배출하고 싶은 거죠.

- 내레이션 : 결국 조선에 기독교를 확산시키려는 미국 교단의 열망에 힘입어 이 송만은 석사와 박사 학위를 한꺼번에 받는 행운을 얻었던 것이다. 그 후 이 명문대 학위들은 이송만에게 전지전능한 수호천사가 되어 주었다. 그가 지지자를 구하면 왕적인 추종자들을 모아주었고 그가 출세의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 에피소드 1. 하와이인 갱스터 (Hawaiian Gangster)

- 내레이션 : 1913년, 이승만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자막 : 하와이 호놀룰루, 1913

- 내레이션 : 이때부터 그의 화려한 출세 신화가 시작된다. 하와이로 그를 부른 건 친 형제나 다름없던 박용만이였다.

자막 : 독립운동가 박용만, Resistance

- 내레이션 : 박용만. 그는 무장투쟁만이 조국을 독립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레지스탕스였다.

자막 : 대조선국민군단, Korean National Brigade

- 내레이션 : 그는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을 마친 후 하와이에서 독립군 부대를 만들고 사관학교를 설립했다. 이에 반해 이승만은 교민들에 대한 교육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승만이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른 독립 운동가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달랐다.

[방송화면] 호놀룰루 스타블러틴, 1916년 10월 6일, 신문 자료

- 내레이션 : 그가 호놀룰루 신문에 쓴 글이다.

자막 : 이승만 박사는 한인 학교에서 '반일사상'을 가르친다는 것을 부인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일본을 비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반일감정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일본 신문들을 나의 대해 오해를 하지 말길 바란다.

- 내레이션 : 오해는 빨리 풀수록 좋다. 오히려 이승만은 일본에 대해 아주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였다. 그는 하와이에 오기 직전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립중앙도서관

[방송화면] 1912년 11월 18일, 워싱턴 포스트 기자회견

- 내레이션 : 한일 합방 후 3년도 지나기 전에 한국은 낡은 인습이 지배하는 느림보 나라에서 활발하고 떠들썩한 산업 경제의 한 중심으로 변모했다.

자막 : 한일 합방 후 3년도 지나기 전에 한국은 낡은 인습이 지배하는 느림보 나라에서 활발하고 떠들썩한 산업 경제의 한 중심으로 변모했다.

- 내레이션 : 놀랍게도 이승만의 말은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똑같다. 아니 미국 신문에다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말한다. 미국인들이 한국의 독립을 응원해줄 이유가 있을까? 이 사건만 본다면 그는 한국이 독립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악질 친일파다.

자막 : 친일파 이승만 박사 Collaborator

- 내레이션 : 그럼 대체 이승만의 정체가 뭐까?

[방송화면] 서중석 교수, 성균관대 사학과 인터뷰 영상

- 서중석 : 초기에 그 분이 친일적인 걸로 보이는 활동을 한 거는 그 당시 미국의 주류적인 분위기가 친일적인 분위기,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죠. 그 분은 미국의 주류적인 입장을 항상 반영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 자신의 권력에 접근하는 길이고 그래서 미국의 주된 세력, 이끌어가는 세력이라고 이승만이 파악했던 힘을 가진 세력들이 친일 성향을 보이면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맞춰 나가는 그런 게 상당히 강했어요.

[방송화면] 이승만 미국 생활 관련 자료 영상

- 내레이션 : 그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관계가 좋을



음성출력용비

때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극찬하면서 미국인들의 비위를 맞쳤다. 그러나 한국인들과 있을 때는 반일 의식이 강한 교육자로 변신했다. 그런 이중플레이를 통해 그는 하와이 한인 사회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방송화면] 정병준 교수,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인터뷰 영상

○ 정병준 :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인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계속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하와이 한인 이민이라고 하는 1902년에 이민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와이에서 노동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 하고 학력도 없고 미국에서 멸시받고 있는 존재였지만 이승만은 미국 아이비리그 박사였고 YMCA를 비롯한 하와이 기독교 교계에서 존경할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 내레이션 : 게다가 이승만은 자신을 안중근 같은 독립투사로 보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습관처럼 손끝에다 입김을 부는 괴상한 행동까지 했다.

자막 : 내가 일본감옥에서 고문을 당해 아직도 손끝이 시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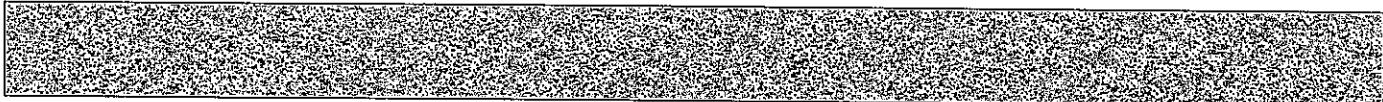
○ 내레이션 : 하와이 한인들이 궁금해 하면 '내가 일본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 아직도 손끝이 시리다'라고 설명했다.

[방송화면] 주진오 교수,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인터뷰 영상

○ 주진오 : 이승만은 일본에 의해서 감옥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죠. 사실은 뭐 일본이 이승만을 박해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자막 : 이승만은 평생 동안, 일본감옥 근처에도 가본 적 없다

[방송화면] 서중석 교수, 성균관대 사학과 인터뷰 영상





- 서증석 : 사실 이 분은 일제 때 한국에 들어온 것은 기독교 관계로 잠깐 그 일제 강제 병합 직후에 잠깐 들어왔다 나간 거 빼놓고는 없고 감옥소 살이 한 것은 고종황제 때 감옥소살이 한 거 있는 거 빼놓고는...
- 주전오 :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영웅 그야말로 역전의 용사 일본의 고문을 이겨낸 뒤 그런 독립투사로 자기를 이미지메이킹 하려는 하나의 시도였고 거짓말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방송화면] 하와이 이민 한국인 관련 자료

- 내레이션 : 그러나 순진한 한인들에게는 아주 잘 먹혔다.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런데 정작 이승만은 소박하게도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했다.

[방송화면] 찰스 정 하와이 교민 인터뷰 영상

- 찰스 정 : 그때 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 만약 나의 사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맹목적으로 나를 따르라.

자막 : 맹목적으로 나를 따르라

- 내레이션 : 맹목적으로 나를 따르라. 대체 이승만은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추종자를 원했던 걸까?

자막 : 하와이 국민회의(Hawaii Korean National Association)

- 내레이션 : 이승만의 첫 번째 목표는 박용만을 지지하는 하와이 국민회를 장악 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한인들은 정기적으로 독립운동 성금을 냈고 이로 인해 국민회는 미주 지역 최대의 독립 자금 조달처였다.

자막 : 하와이 한인들 간의 싸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인들이 범정에 선 총재를 내쫓았다, 한인 중인에게 살해 협박(신문 자료)



- 내레이션 : 이 사실을 잘 아는 이승만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국민회를 장악하기 위해 싸웠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겐 테러도 불사했다.

[방송화면] 미니 유, 하와이 교민 인터뷰 영상

- 미니 유 : (이승만이 당신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걸 어떻게 아셨죠?)

자막 :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농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 등 뒤에서 무기를 들고 다가왔어. 곡괭이. 등을 찍었어. 그래서 아버지는 병원에 가야했지. 이승만이 한 것인가요? 이승만의 폭력단 조직원이 저지른 거야.

[방송화면] 에드워드 김, 하와이 교민 인터뷰 영상

자막 : 이승만은 조직의 대표 자리와 통제권을 넘기라고 했어.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안정적인 돈이 국민회로 들어오거든. 이승만은 자신의 조직원들을 전부 데려왔어. 그래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어. 총까지 쏘대고.

[방송화면] 하와이 시절의 이승만 영상

- 내레이션 : 이승만 그는 사이비 기독교인이었던 모양이다. 사람을 살천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피 튀기는 테러까지 동원하여 국민회를 장악했다. 그리고 네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도 어기며 현란한 부동산 재테크에 착수했다.

자막 : 1914년 7월 14일

- 내레이션 : 1914년 7월 14일, 이승만은 한인들이 모아준 여학생 기숙사 건립기금 2,400달러로 부동산을 구입했다.

자막 : 여학생 기숙사 건립기금, 2,400달러로 부동산 구입. 하와이 법원자료, 1914년 7월 14일, 이승만이 프레드베링거에게 저당, 부동산 저당 1,400달러(현재 약 7천만원), 1년 내 상환 연리 8%(하와이 법원자료 영상)



- 내레이션 : 그런데 바로 그 날 이승만은 자신에게 땅을 판 프레드 베링거에게 그 땅을 담보로 1400달러를 빌렸다. 조건을 1년 내 상환. 이자는 연리 8프로였다.

자막 : 1년 후, 1915년 7월. 이 박사 날 실패시키지 마. 내 빚 1400달러 국민회가 책임져라.

- 내레이션 : 그런데 1년 후 베링거가 빚을 갚으라고 하자 이승만은 자기 빚을 국민회더러 갚으라고 떠넘겨버렸다. 그리고 점점 더 대담해졌다.

자막 : 국민회 한인 여학교(Korean Girls Seminary)

- 내레이션 : 그는 국민회 재산인 여학교도 단돈 1달러에 인수했다.

자막 : 이승만 한인 여학교 수탁자, 1달러(하와이 법원자료 영상), 1달러 줬으니 여학교는 내가 접수한다

- 내레이션 : 그 후로도 그는 이런 짓들을 계속 반복했다.

[방송화면] 하와이 법원자료 영상

자막 : 부동산 2개물 저당 잡혀 4,250달러 대출, 남학생 기숙사 저당 잡혀 3,500달러 대출, 여학생 기숙사 부지 마린 실바에게 매각, 남학생 기숙사 스트라우치에게 매각

- 내레이션 : 국민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쟁기고 마지막에는 자기 소유로 만든 국민회 재산들을 전부 매각해 목돈을 챙겼다.

자막 : 이 박사의 재테크 비결

- 내레이션 : 이것이 하와이 갱스터의 재테크 비결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짓을 하면 결국 감옥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김성출박종배

[방송화면] 김희수 변호사(형사소송 전문) 인터뷰 영상

○ 김희수 : 당연히 감옥 갈 범죄 행위죠.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그래도 정상이 굉장히 나쁜 범죄. 죄질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나쁜 죄질의 범죄 행위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모아 놓은 돈의 성격이기 때문에 독립 운동을 빙자한 횡령 범죄 행위라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현재의 법률적 잣대로 들여다본다면 징역 7년 이하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죠.

□ 에피소드 2 역의 탄생 [The Rise of Epi]

○ 내레이션 :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자막 : 1918년, 안현경 하와이 국민회 회장, 이승만 재무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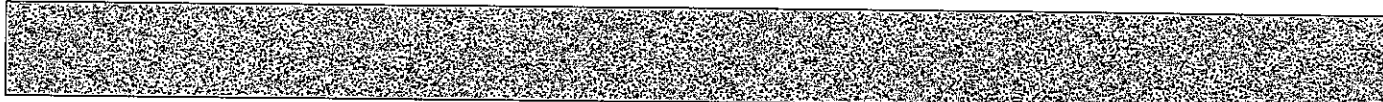
○ 내레이션 : 이승만이 장악한 국민회의 공금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자막 : 불신임안 제출, 신한민보(영상화면)

○ 내레이션 : 그들은 회계 처리가 엉터리라는 물증까지 확보하고 이승만 세력의 퇴진을 요구했다. 물론 이승만은 가만두지 않았다. 추종자들을 동원해 물증을 빼앗고 입을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폭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다. 만약 모든 비리가 탄로 나면 이승만은 끝장이 난다 물론 그는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 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기상천외한 해결책을 찾아냈다.

자막 : 국민회 대의원, 유동면, 김한경, 김석률, 이찬숙

○ 내레이션 : 먼저 이승만은 재정문제를 제기한 국민회 대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자막 : 폭동죄로 하와이 경찰에 고소, 하와이 법원, 1918년 2월 27일

- 내레이션 : 폭동이나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물로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1918년 2월 27일.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승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저질렀다. 그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미국 판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자막 : 판사님! 이들은 박용만 패당이며 미국 영토에 한국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반일 행동을 하며 일본 군함 이즈모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는 음모까지 꾸민 무리들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중대한 사건을 일으켜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판사님, 저들을 조치 해주십시오.

자막 : 통곡할 재판사건, 5천명 동포가 모두 망신이로다, 신한민보

- 내레이션 : 믿기 힘들겠지만 이걸 실화다. 실제로 그는 이런 증언을 했다. 그런데 이승만의 이런 행동은 자기 조국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 아닌가?

자막 : 반역자 BETRAYER

[방송 화면] 실방 레미, 파리 1대학 박사 과정 인터뷰 영상

- 실방레미 : 프랑스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포들이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다. 그들은 타국에서 조국을 돕고자 했으니까 따라서 이 사건을 반역 행위로 봤을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2차 대전 때 프랑스인이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독일의 프랑스 점령이 프랑스에 이익이 됐다 그런 말을 했다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반역자로 여겼을 것이다.

자막 : 프랑스 해방, 1944년 8월

- 내레이션 : 만약 이승만이 프랑스 사람이었다면 1944년 프랑스가 나치로부터 해방



원성출력용비

됐을 때 그는 프랑스 법정에 새워졌을 것이다.

자막 : 이승만 A Class Collaborator, A급 민족반역자

- 내레이션 : 그리고 어떤 변명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라도 이승만은 A급 반역자로 판결을 받고 사형을 받았을 것이다.

□ 에피소드 3. 똑바로 섰라 [Choose a Righteous Man]

자막 : 아일랜드 독립전쟁 IRISH WAR OF INDEPENDENCE, JAN. 1919

- 내레이션 : 1919년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벌어졌다.

자막 : 독립운동가, 마이클 콜린스, Resi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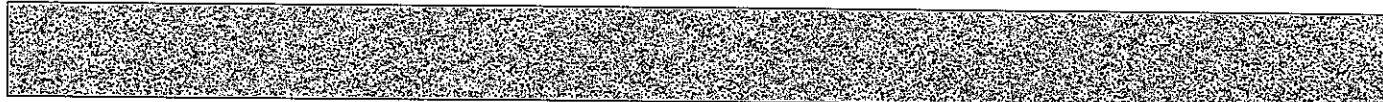
- 내레이션 : 아일랜드는 3백 년 동안이나 영국의 식민지였다. 그런데도 민족성을 잃지 않고 독립을 얻기 위해 영국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자막 : 3.1운동 MANSE UPRISING FOR INDEPENDENCE

- 내레이션 : 그해 3월 한국에서도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무려 2백만 명이 참가한 거대한 항쟁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처형됐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독립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자막 :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Resistance

- 내레이션 : 수많은 민중들이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군이 되었고 홍범도 같은 무장 투쟁의 지도자들은 독립군 부대를 이끌고 국내로 진격하며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원성중적용비

자막 : 상해 임시정부,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APR. 1919

- 내레이션 : 이때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상해에 모여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했다.

자막 :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

- 내레이션 :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최고 지도자로 이승만을 추천했다.

자막 : 명목적으로 나불 따르라

- 내레이션 :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걸까?

[방송화면] 서중석 교수, 성균관대 사학과 인터뷰 영상

- 서중석 : 임시정부 구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국내 기호파 개신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막 : 기호파 개신교 세력, 황해도, 경기지역 출신 기독교인

- 내레이션 : 자기들이 볼 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자기들과 교분이 가까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건 이승만을 쉽게 꼽을 수가 있었죠.

- 내레이션 : 안타깝게도 그들도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자막 : 지역주의, 종교편향, 학벌중시

- 내레이션 : 지도자가 될 사람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기왕이면 같은 지역 출신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 학벌이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길 원했다.

자막 : 이승만 대통령,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 내레이션 : 그래서 결국 돈과 출세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다. 하와이 갠단 보스에서 순식간에 대통령이 된 이승만. 그는 역시 제일 먼저 임시정부의 돈을부터 장악하려고 했다.

자막 : 워싱턴 구미위원회

- 내레이션 :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에 쓰겠다며 국채를 발행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자막 : 목표액 5백만 달러, 현재 약 8천억원

- 내레이션 : 목표액은 5백만 달러. 하와이 때보다 스케일이 엄청 커졌다. 하지만 큰 장애물이 있었다.

자막 : 애국금 모금

- 내레이션 : 임시 정부가 이미 독립운동 성금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자막 : 애국금 모금을 중단하라

- 내레이션 : 이승만은 즉시 모금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자막 : 그동안 걸은 애국금도 넘겨라, 문패는 내가 하겠다

- 내레이션 :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하와이 경제의 본색을 드러내며 정부에서 걸은 돈도 전부 넘기라고 요구했다.





자막 : 국무총리 이동휘, 제정은 재무부가 관리하니 각하가 동포들에게 파는 채권이나 중단하시오

○ 내레이션 : 하지만 기호파 세력이 아닌 정부 요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막 : 연흥부, 국내 비밀 행정조직

○ 내레이션 : 그리고 한인들이 내는 성금으로 국내에 비밀 조직을 확대하고

자막 : 인시정부 예하 부대, 대한광복군 총군영,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 내레이션 : 만주의 독립군 부대들 통합하며 본격적인 독립전쟁 준비에 착수했다.

자막 : 캘리포니아 비행학교

○ 내레이션 : 게다가 놀랍게도 캘리포니아에 비행학교를 세워 공군 창설까지 추진했다.

자막 : 우리는 태평양을 날아가 쥐 같은 왜왕의 머리를 부수고 싶다

○ 내레이션 : 그러나 이승만은 집요했다.

자막 : 안현경, 1918년 공금횡령사건 관련자

○ 내레이션 : 상해에 파견한 자신의 심복 안현경을 통해 기호파 세력을 움직이며 재정권 장악을 추진했다.

자막 : 구미위원부에 모금업무를 전부 맡긴다

○ 내레이션 : 1920년 3월 결국 독립 성금을 둘러싼 갈등은 이승만의 승리로 끝났다.





원성출력용비

자막 : 각부 차장들 집단사직 결의, 구미위원부 폐지, 이승만 사퇴 요구

o 내레이션 : 그러자 임시정부는 내분에 휩싸였다.

[방송화면] 서중석 교수, 성균관대 사학과 인터뷰 영상

o 서중석 : 모든 충돌은 돈과 관련이 있다. 이승만과 관련되는 수많은 충돌은 다 돈과 관련이 있다.

[방송화면] 정병준 교수,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인터뷰 영상

o 정병준 : 그것은 이승만의 본능이나 본성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o 내레이션 : 임시정부의 돈을 장악한 이 박사. 그는 신이 나서 미국에서 대대적인 모금 활동을 벌였다. 이승만에게는 정말 찬란한 봄날이었다.

자막 : 노디 김(Nodie Kim), 오벌린대 여대생

o 내레이션 : 나이 마흔여섯에 자신을 숭배하는 스물두 살짜리 여대생과 여행도 하고

자막 : 1920 USA Tour 이박사의 미국 투어, Luxury Restaurant, Luxury Hotel

o 내레이션 : 뿐만 나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최고급 럭셔리 호텔에서 잠을 잤다.

자막 : 1920년 6월, 샌프란시스코

o 내레이션 : 그런데 192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덜컥 미국 수사관들에게 잡혔다.

[방송화면] 이승만과 여성들의 사진을 활용한 그래픽(OOA1288 SYNGMAN



RHEE DATE 06/1920, OOA1289 NODIE KIM, DATE 06/1920)

o 내레이션 : 당시 미국은 청교도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자막 : MANN ACT 맨 법을 위반, 부도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자를 데리고 주경계선을 넘으면 불법이다

o 내레이션 : 그래서 부도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자를 데리고 주 경계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자막 : 믿어주세요. 우리는 아버지와 딸 같은 관계입니다

o 내레이션 :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사관들은 믿지 않았다. 집중 조사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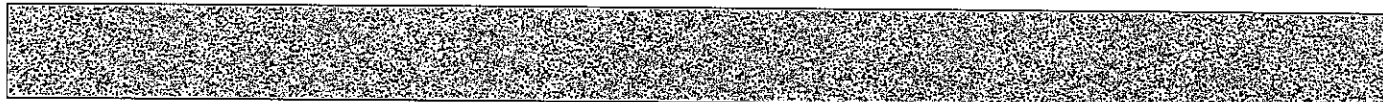
자막 : INVESTIGATION REPORT, Violation of The Mann Act, Suspect : Syngman Rhee, 용의자 이승만 수사기록

o 내레이션 : 그러자 이승만의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 드러났다. 이승만이 백인 여자들에게도 접근해 마치 재벌 2세처럼 최고급 식사를 사주며 데이트를 즐겼던 것이다.

자막 : PLAYBOY, LUXURY GUY, Syngman Rhee, THE INDICTMENT 기소 결정(그래픽)

o 내레이션 : 결국 미국 수사관들은 이승만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했던지 그를 기소해버렸다. 사태는 심각했다. 만약 이 사건이 등골이 휘도록 일해서 독립 성금을 내주는 한인들에게 알려지면 일단 개당 신은 기본이고 다시는 이승만에게 명전 한 톨 줄 리가 없다. 그는 조심스럽게 해결책을 강구했다.

자막 : 이 박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지만 환영회는 취소됐다, 박사의 행동은 비밀을 요구한다는 통지가 있었다





○ 내레이션 : 일단, 대통령 환영회에 불참을 통보하고 그 이유는 비밀이라고 둘러댔다.

자막 : 하와이에서 재판 받고 싶어요

○ 내레이션 : 그리고 재판은 하와이에서 받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자막 : 6월 29일, 호놀룰루 도착

○ 내레이션 : 그렇게 호놀룰루에 도착하자 이승만은 비밀리에 백인 유력 인사들과 접촉했다.

자막 : 이 박사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 내레이션 : 이승만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백인들 그들은 이박사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보증을 해주었다.

자막 : DISMISSED, 기각결정

○ 내레이션 : 결국 그는 위기 상황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그제야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지 1년 만에 상해로 갈 준비를 시작했다.

□ 에피소드 4. 상해의 결투 (Fight in Shanghai)

[방송화면] 청산리 전투 등 독립 전쟁 장면

○ 내레이션 : 바로 이때

자막 : 일본군 간도 출병, JAPAN SEND TROOPS TO GANDO, OCT. 1920



- 내레이션 : 일본은 만주 일대의 독립군을 초토화시키겠다고 대규모 병력을 출병 시켰다.

자막 :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 내레이션 : 그러자 홍범도와 김좌진은 부대를 이끌고 청산이 일대에 집결했다.

자막 : 독립군 병력 3,000, 일본군 병력 35,000

- 내레이션 : 죽음을 각오한 3천여 명의 독립군들은 3만 5천명의 일본군에 맞서 6 일간의 대격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일본군을 완벽하게 박살내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자막 : 청산리 전투, OCT. 1920

- 내레이션 :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일본 그런 일본이 의병과 다름없는 조선인 독립군에게 대패하면서 처음으로 치욕적인 패배를 맛보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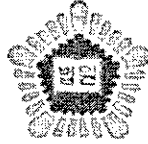
자막 : 간도 대학살

- 내레이션 : 그러자 일본군은 조선인 민가들을 습격하며 소름끼치는 대학살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상해 임시정부는 발각 뒤집혔다.

자막 : 당장 중국과 연합하여 대일 게릴라전을 펼치자, 군사력을 제대로 키워 전쟁을 해야 한다

- 내레이션 : 감정파들은 당장 중국과 연합해 게릴라전을 벌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온건파들은 군사력을 제대로 키워서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승만이 상해로 왔다.





자막 : 대통령 환영식, 1920년 12월 28일

- 내레이션 : 일단 모두가 환영을 해주었다. 독립성금 문제로 이승만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환영회에 참석했다.

자막 : 대통령은 정부에서 근무해야 효율적이다, 그게 힘들면 국무회의에 권한을 위임해 달라

- 내레이션 : 임정 요인들은 일본에 맞서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벌이자며 정부 개혁 방안들을 건의했다.

자막 : 나는 미국에 있을 것이고, 어떤 권한도 넘겨줄 수 없다

- 내레이션 : 하지만 이승만은 모조리 거부했다.

자막 : 자진 사퇴를 시킬까?

- 내레이션 : 결국 정부 요인들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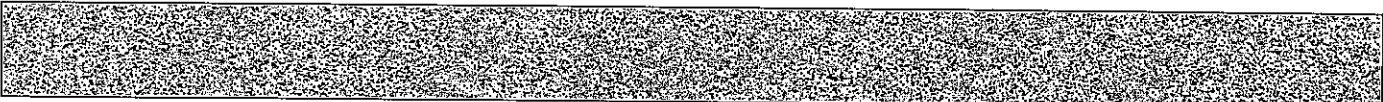
자막 : 모든 불만을 한방에 날려주마, 대통령 연두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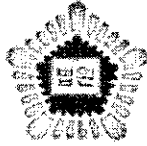
- 내레이션 : 그러자 이승만은 전격적으로 대통령 교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거기엔 아주 획기적인 이승만의 독립운동 전략이 담겨 있었다.

[방송화면] 이승만 대통령 독립운동 전략 1921 (CG)

- 내레이션 : 우리 형편상 전쟁 준비는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국내 의 일반 국민들은 각자 직업에 종사하며 여가 시간에 병법을 연마하라. 무기도 각자 구하라. 그러다 좋은 시기가 오면 일제히 나가서 싸우라.

[방송화면] 임시 정부 관련 자료





원성출력용비

- 내레이션 : 독립운동가들은 그야말로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체 왜 이승만은 이런 돌대가리 같은 전략을 내놓은 걸까? 그 이유는 역시 돈과 판련이 있다.

자막 : 국민(People)→중개인 Broker→정부 Government, 무기구입비 부대 운영비(그래픽)

- 내레이션 : 임시 정부 수립 후 헌인들은 독립성금을 냈고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서 독립군 부대를 양성했다. 그런데 이승만이 끼어들어 브로커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 동안 성금을 받아서 성과도 못 내는 외교 활동을 내세우며 13%만 송금한 것이다. 그런데 독립전쟁 준비를 모두 국민에게 떠넘기면 어떻게 될까? 이승만으로써는 정부에 보내야 할 돈을 더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바로 이게 핵심이다. 결국 독립운동가들도 인내심에 한계를 느꼈다. 대통령이란 자가 독립성금이나 눈독 돌이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허무맹랑한 전략이나 지껄이면서 아무런 비전도 내놓지 못하니 일정 요인들 사이에서 '이대로는 안된다.' 그런 매우 건설적인 공감대가 확산됐다.

자막 : 이대로는 안된다, 안창호, 김규식. 대통령직에서 사퇴하라

- 내레이션 : 마침내 정부 핵심 요인들은 이승만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가 누군가? 돈과 출세에 청춘을 바친 이승만이다. 결국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자막 : 저런 썩은 대가리와 함께 일할 수 없다

- 내레이션 : 국무총리가 이미 떠난 상황에서

자막 : 말이 되는 대책이 있어야 참여해서 돕지 시간만 낭비하기 싫다, 당신이 사퇴해야만 독립운동 세력이 통합된다





음성출력용비

- 내레이션 : 김규식 그리고 안창호마저 임정을 떠났다. 위기 탈출의 귀재 이승만 과연 그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했을까? 긴급한 외교 사명이 있어 미국에 간다. 그렇게 임시정부를 속발으로 만들어놓고 이승만은 백인 미녀들과 럭셔리 레스토랑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 에피소드 5. 우리는 혁명을 꿈꾼다 (We Dream about A Revolution)

- 내레이션 : 1924년, 상해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임정을 개혁하려는 독립운동가들이 의정원의 실권을 장악한 것이다.

자막 : 여운형, 윤기섭, 최창식

- 내레이션 : 그들은 독립운동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승만의 대통령 권한부터 정지시켰다.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 그는 곧바로 하와이 강파의 본색을 드러냈다.

자막 : 지금부터 임시정부에 인구세를 보내지 마라

- 내레이션 : 독립운동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다. 악질 친일파를 능가하는 이승만의 행동에 임시 정부는 즉시 칼을 빼들었다.

자막 : 이승만 만세, 만세, 이승만 스코이, 날 열받게 한 대가다, THE IMPEACHMENT 탄핵

[방송화면] 서중석 교수, 성균관대 사학과 인터뷰 영상

- 서중석 :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써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이승만 쪽에서는 거기에 미주지방 동포들이 거두어준 돈을 딱 끊어버리거나 그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정치권력에서 해게모니를 쥔 수 있다는 역시 이승만다운 발상이라고...



[방송화면] 김구 임시정부 시절 자료

자막 : 잠은 청사에서 자고 밥은 동포들에게 빌어먹는 상황이다

- 내레이션 : 그 뒤 임정은 새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바로 이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 남자가 임시정부의 새로운 지도자로 떠올랐다. 나라를 잃은 분한 마음에 일본 첩자를 맨주먹으로 때려잡았던 터프한 남자.

자막 :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

- 내레이션 : 그리고 조국이 독립할 수만 있다면 임정의 문지기가 돼도 좋다는 순정파 로맨티스트 그는 열혈 민족주의자 김구였다. 역시 진짜 독립운동가는 이승만과 달랐다.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자막 : 미국 대통령이 반드시 한국 문제를 처리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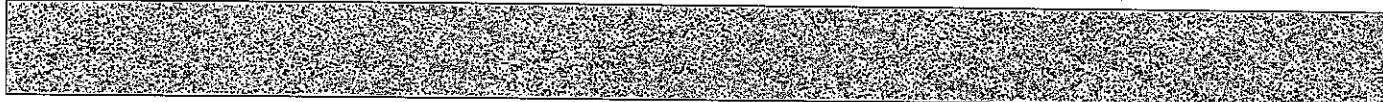
- 내레이션 : 이 냉정한 국제 관계를 정확히 직시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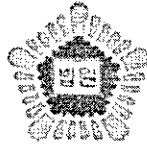
자막 : 미국과 영국 일본의 한국 지배를 동의, 워싱턴 군축회의 1921

- 내레이션 :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김구의 임시 정부는 눈물겹도록 현실적인 독립 운동 전략을 세웠다.

자막 : 미약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일본과 싸워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의 적대국들이 한국을 주목한다

- 내레이션 : 그리고 곧바로 구체적인 공격 계획을 수립했다. 상해 일본 군사 사령부, 국내 조선총독부 만주의 관동청 그리고 도쿄의 일본 천황까지 직접 타격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김구는 특무조직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다.





자막 : 독립운동가 이봉창 Resistance, 천황에게 폭탄투척

- 내레이션 : 그리고 1932년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았다. 그때 운명처럼 김구를 찾아온 청년이 있었다.

자막 : 독립운동가 윤봉길 Resistance

- 내레이션 : 그는 농민들을 가르친 계몽 운동가였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방송화면] 윤봉길 영상자료

자막 : 일본군 전승축하기념식 APRIL 29, 1932

자막 : 나도 알고 있다 일본 장교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는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 자유의 세상은 우리가 찾는다. 나의 자유, 민중의 자유 개인의 자유는 민중의 자유에서 나아진다. - 윤봉길

자막 : 하와이

- 내레이션 : 그러자 이승만은 주제넘은 충고를 했다.

자막 : 어리석은 짓들 좀 작작해라 독립운동에 하등 도움이 안된다

- 내레이션 : 그러나 윤봉길의 희생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다.

자막 : 장제스 총통, 중국의 3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인 한 사람이 해냈다.

- 내레이션 : 그리고 장제스 총통은 한국의 레지스탕스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자막 : 한국 광복군 창설 SEP. 1940





원서출력용비

○ 내레이션 : 드디어 임시 정부가 독립 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것이다.

[방송화면] 태평양 전쟁 자료

자막 : 태평양전쟁 DEC 8. 1941

자막 : 미합중국은 갑작스럽고 계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의로운 힘을 가진 미국인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입니다.

자막 : 외교천국 투쟁지옥

○ 내레이션 : 일본과 미국이 친할 때는 외교 노선이 제일이라던 이승만이 이제 일본이 미국의 적이 되자 화려한 변신을 했다.

[방송화면] 이승만 미국의 소리 자료화면

자막 : 투쟁천국, 미국의 소리

○ 내레이션 :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낸 해외에 산재한 우리 이천 삼백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자막 : 분투하라!

○ 내레이션 : 분투하라.

자막 : 싸워라!

○ 내레이션 : 싸워라.

자막 : 우리가 피를 흘려야

○ 내레이션 : 우리가 피를 흘려야...



홍성출판문화

자막 : 일본의 식민지가 조선을 발전시킨다

- 내레이션 : 일본 식민 지배가 조선을 발전시킨다고 극찬했던 이승만. 그런 그가 갑작같이 반일 항전의 투사로 변신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유력자들과 접촉하며 다시 쫓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때 임시정부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에 참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자막 : 영국군에 광복군 파견 AUG. 1943
미국 전략첩보국, 한국인들을 한국과 일본에 침투시켜 대일전에 활용한다

- 내레이션 : 그런데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의 전략첩보국이 한국인들을 대일전에 활용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자막 : 도노번 소장, 이승만과 접촉하지 마라, 우리와의 관계를 개인적 선전활동에 이용한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 내레이션 : OSS는 먼저 이승만과 접촉했는데 그가 OSS와의 관계를 대외선전용으로 이용한다고 판단하고 관계를 끊어버렸다.

자막 : 이범석 장군, 사전트 소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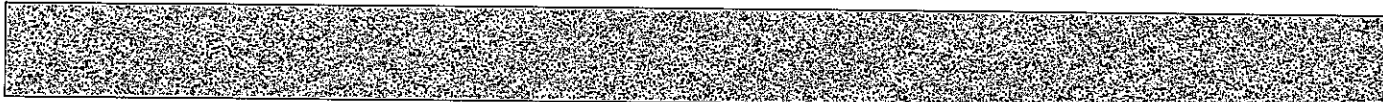
- 내레이션 : 그리고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직접 손을 내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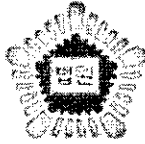
[방송화면] 1945년 도쿄 대공습 자료

자막 : 도쿄 대공습, MARCH 10, 1945

- 내레이션 : 1945년 5월, 마침내 임시정부는 OSS와 한미공동작전에 합의했다. 이것이 국내 진공작전이란 불리는 이글 프로젝트였다.

자막 : 노농서, 김준엽, 장준하





국선출력용비

- 내레이션 :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 광복군 병사들은 가슴이 벅찼다. 만약 광복군이 국내로 들어가 직접 일본군을 몰아낸다면 임시정부가 한국의 독립에 대해 당당하게 발언할 권리를 얻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독립운동가들이 구상해온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뉴데모크라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였다.

[방송화면] 이만열 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인터뷰 영상

- 이만열 : 그건 인민의 자유와 인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유만 가지고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거냐? 그렇지 않다.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그런 합의도 이 전국강령 속에 넣어야 된다.
- 내레이션 : 한국의 레지스탕스들이 꿈꾸던 나라 그것은 지금의 프랑스나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과 가장 비슷하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국민들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분야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은 프랑스처럼 대학 등록금까지 무료로 해서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방송화면] 서중석 교수, 성균관대 사학과 인터뷰 영상

- 서중석 :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1945년까지 당시 사료를 보면 자신들은 전부 혁명가라고 생각했다. 그 전의 사회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 자유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착취가 없는 사회 억압이 없는 사회 그건 민주공화국이다.

[방송 화면] 맥아더 장군 관련 자료

자막 : 1945년 7월, 워싱턴

- 내레이션 : 1945년 7월 워싱턴. 임시정부의 활발한 움직임에 이승만은 초조해졌다. 그는 상황을 역전시킬 승부수를 찾았다. 연합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그는 미국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태평양의 황제였다. 일본이 항복하면 한국 문제의 실권도 그가 쥐게 된다. 결국 맥아더의 선택을 받는 자가 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실

자막 : 소련과 협상은 절대 없다

○ 내레이션 : 그런데 그는 소련을 싫어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이승만은 그런 맥아더를 공략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러브레터를 쓰기 시작했다.

자막 : 친애하는 맥아더님 저희는 대일전에 꼭 참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쁜 소련의 방해로 좌절되었어요.

○ 내레이션 : 물론 소련은 방해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 분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약간의 거짓말을 즐 췌었다. 그러자 3일 후 그분에게서 답장이 왔다.

자막 : 이 박사의 승고한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소

○ 내레이션 : 아 이게 현실일까? 이승만은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

[방송화면] 일본 패전 자료화면

자막 : 일본 패전 AUG 15, 1945

○ 내레이션 : 원자 폭탄을 맞자 일본은 예상보다 빨리 항복을 선언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에게 비극적인 소식이었다.

자막 :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천신만고로 참전 준비를 한 것이 다 허사가 되었다

○ 내레이션 : 김구는 조국의 미래를 걱정했다. 대일전에 참전을 못했으니 한국인들이 당당하게 독립을 주장할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제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려 들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 소련의 꼭두각시가 되어 대리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독립운동가들은 태극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비통함으로 울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이승만은 웃고 있었다. 그는 맥아더를 향해 더욱 노골적인 구애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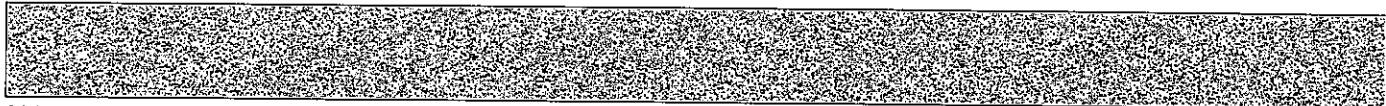
자막 : 미국이 단독으로 한국을 점령해주시오. 전 소련이 싫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맥아더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를 만나면 이승만이 할 말은 뻔했다. 제가 마음에 드시던 저를 한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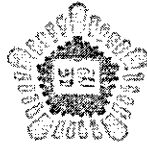
○ 내레이션 : 이 당시 맥아더는 도쿄에서 일본 문제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연안국들은 침략 전쟁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히로히토 그는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받을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태였다. 9월 27일, 히로히토는 조용히 맥아더를 찾아갔다. 그리고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다.

자막 : 저를 살려주시고 천황제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내레이션 : 맥아더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정의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히로히토를 처벌했을까?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확대하려고 정치적 거래를 수락했을까? 그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 삶을 바쳐온 애국자다. 맥아더는 히로히토를 전범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일본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와 동북아 방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제 다음 차례를 한반도 문제였다. 미국의 영웅 맥아더.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세우고 싶었을까? 맥아더 자신처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애국자였을까? 물론 그럴 리가 없다. 맥아더는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인물을 원했다. 1945년 10월 13일, 이승만은 도쿄로 향했다. 이제 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끝>





별지 2

□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는가

[방송화면] 박정희 정권 로비스트 박동선& 코리아게이트 관련 미 언론 보도

○ 내레이션 : 1976년 미국 대륙 전체가 박정희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사건이 발각된 것이다. 이것을 미국언론들은 코리아게이트 사건이라고 불렀다

○ 내레이션 : 결국 1977년 2월3일, 미 의회는 프레이저 의원이 이끄는 국제관계 소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때부터 프레이저 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박정희는 민병권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그리고 특명을 내렸다.

[방송화면] 박정희 대통령이 앉아있는 모습 앞에 자막처리

자막 : 미국에 가서 김형욱이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가는 것을 막아

○ 내레이션 : 프레이저 청문회 3일 전 민병권은 김형욱을 찾아갔다. 김형욱 그는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고, 오랫동안 중앙정보부 부장으로서 박정희에게 절대 충성을 바쳤던 인물이다. 그러나 박정희가 3선 대통령이 될 때 그는 큰 꿈을 세우고도 버림을 받았다. 그러자 김형욱은 배신감을 느끼며, 미국으로 망명한 상태였다. 그런 김형욱에게 민병권은 회유를 시작했다.

[방송화면] 김형욱의 사진 옆에 자막처리

자막 : 원하는 모든 것을 보장해주겠다 제3국으로 떠나라

○ 내레이션 : 그러나 김형욱은 단호히 거부하고 워싱턴으로 떠나버렸다. 낙담한 민병권은 발길을 돌리며 김형욱의 아내에게 말했다.

[방송화면] 김형욱의 사진 옆에 자막처리





자막: 형욱이한테 꼭 전해 청문회에서 증언하면 제대로 못할 줄 알라고

[방송화면] 1977년 6월 22일 김형욱 프레이저 청문회 장면

- 김형욱 (육성) : 10월 유신 헌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미국의 여러 가지 눈치를 안볼 수 없는...
- 내레이션 : 김형욱은 미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비밀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후 살해됐다. 1978년 10월 31일, 드디어 프레이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정희의 집권기간 전체가 조사돼 있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내용까지 있었다. 왜 한국은 그토록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담겨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모든 것이 사실무근이라며 국민들을 속였다. 그런데 1년 후 박정희는 부하 김재규의 총탄에 살해됐다. 이제 한국인들도 한국 경제 성장의 진실을 알게 될 기회가 왔다. 그러나 곧바로 박정희가 키워놓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들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차단하며 박정희의 경제 신화를 보호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그러면서 프레이저 보고서의 존재도 완전히 잊혀졌다.

[방송화면]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 내레이션 : 한국은 아주 빠른 시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 이유가 뭘까? 학자들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이 핵심이었다고 분석한다. 그럼 이 전략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이 사람일까? 박정희가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준 걸까? 한국의 중장년층은 철석 같이 그렇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프레이저 보고서는 박정희가 아니라고 말한다. 비밀이 해제된 미국 기밀문서들도 그가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걸까?

□ Chapter 1. 케네디의 남자들 (Kennedy's 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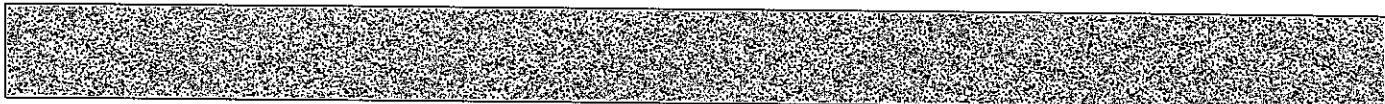


o 내레이선 :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 이제 미국의 최대 적은 소련이었다. 소련은 주변 국가들에게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를 해주며 세력을 넓혀나갔다.

[방송화면] 유럽과 아시아의 부흥을 위해 서독과 일본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 DEAN ACHESON 에치슨 국무장관

o 내레이선 : 공산주의 팽창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일본을 점령하자 즉시 개조작업에 들어갔다. 미국식 정치제도와 문화를 빠르게 이식시켰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부흥을 위해 서독과 일본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는 일본에 전폭적인 원조를 해주었다. 그러자 폐허가 됐던 일본 경제는 빠르게 복구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전쟁 물자를 공급하면서 엄청난 고속 성장까지 이루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남한에 이승만 정권을 세웠던 미국은 완전히 실패했다. 막대한 원조를 했지만 경제상황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이승만과 친일파 세력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 원조를 받은 북한은 3년 만에 전후 복구를 마쳤다. 그리고 천리마 운동이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결국 북한의 경제력은 세계 50위. 남한은 101위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미국은 위기감을 느꼈다. 가난한 한국인들이 북한을 부러워하다가 갑자기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미국은 매우 초조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젊고 스마트하고 섹시한 남자 존 에프 케네디.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했다.

[방송화면] (존 에프 케네디 연설화면) 빈곤에 시달리는 전 세계 절반의 국민들, 집단적 가난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는 국민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울 것을 맹세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도울 겁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한 국가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유신공약용비

○ 내레이션 : 친미국가 개발전략 이것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케네디 정부의 새로운 전략이었다. 유능한 케네디의 전략가들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계속 늘어나는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 혁명은 가난한 국가들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공산주의라는 전염병을 막으려면 반드시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친미국가 개발전략의 핵심이었다. 이때, 한국에 관한 긴급 보고서가 케네디에게 올라왔다.

[방송화면] 남한 상황이 위협스런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고, 반정부 심리가 강력한 반미 감정으로 폭발해서 혁명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휴 팔리 보고서

○ 내레이션 : 그리고 4월 11일 서울의 메카나기 대사도 긴급 보고서를 올렸다. 4.19혁명 이후 남한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개입했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면서 남한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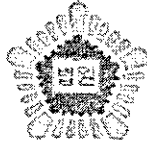
○ 내레이션 : 케네디는 즉시 메카나기를 미국으로 불렀다. 그리고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 메카나기의 책임아래 한국문제 데스크 포스터를 만들이라. 그리고 (1960년) 5월 15일까지 새로운 한국의 발전 전략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완성해라. 그것은 가난한 한국인들에게 축복 같은 소식이었다. 이때, 새로 등장한 장면 정부도 경제부흥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

[방송화면] 장면 총리 연설

○ 장면 (육성) : 일할 기회들 가지는 여러분은 독재와 싸워 이겼을 때 그것보다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단결과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 내레이션 :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놓고 가난한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만약 미국의 새 전략에 따라 5개년 계획이 성공한다면 장면은 뛰어난 지도자로 존경받을 것이다. 그러나 행운의 여신은 장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 내레이션 : 쿠데타가 벌어지자 케네디는 즉시 박정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기밀 보고서가 올라왔다. 제일 먼저 케네디가 알게 된 정보는 박정희가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됐다는 것이다. 이때 박정희는 자신의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복수를 건졌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군들은 박정희를 뺀 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 박'이란 별명을 붙였다. 쿠데타의 리더가 공산주의자였다니! 케네디와 참모들은 긴장했다. 그런데 희망적인 보고서들이 계속 올라왔다. 이런 보고서들을 보자 케네디는 여유를 되찾았다. 그는 쿠데타 때문에 연기했던 한국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 내레이션 : 1961년 6월 13일 바로 이날 한국의 운명을 바꾸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문제 테스크 포스팀이 작성한 종합보고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그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 둘째, 미국의 국가적 위신이 걸려 있다. 셋째, 특히 일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결국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이 위협해지고 미국의 태평양 방어라인도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는 미국이 돈을 쏟아 붓고도 한국을 발전시키지 못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했다. 과거 미국의 원조는 군사 안보목적, 전후 복구 그리고 한국인들의 최저 생계유지에만 사용됐다. 그런 뼈아픈 반성을 한 뒤 한국의 경제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정말 케네디의 전략가들은 치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개혁, 부패추방 그리고 교육 제도까지도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한국의 교육이 유교적 전통에 따라 인문 분야만 중시하고 과학 분야를 경시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 분야와 기술,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내레이션 : 1961년 6월 13일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한국의 경제개발과 근대화 전략을 수립해버린 것이다.





□ Chapter 2. **압살한 사무라이들 (Cunning Samurai)**

- **내레이션** : 1961 6월 20일 케네디는 이케다 수상과 만났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개발에 일본의 참여도 필요하다. 빨리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케다는 미국의 뜻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뒤,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극우파의 거물 요시다 시게루 전 수상, 그도 미국에 와서 케네디와 한국 문제를 논의했다. 그런데 왜 일본 극우파들이 한국 개발을 돕겠다고 나선 걸까? 그 이유는 요시다 시게루가 자기 입으로 당당하게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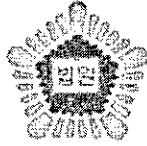
자막: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의 길을 따라 재차 조선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겠다.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해, 한국 경제를 일본에 의존적인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 설비와 원자재로 상품을 만들고 번 돈으로 다시 일본 원자재를 수입하는 무한반복 시스템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 그런 압살한 구상을 하고 있었다. 당연히 미쓰비시, 미쓰이 같은 일본 대기업들은 10년 만에 얻은 절호의 기회라며 흥분해 있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은 천일파였던 박정희를 주시했다. 만약 그에게 뇌물을 준다면 그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인물일까? 그들은 몹시 궁금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시하는 가운데 박정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4일에 반공법을 선포했다. 그것은 자신이 공산주의와 완전히 손을 끊었다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10월31일 박정희는 한 언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북한을 찬양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이다. 조용수는 제일동포 북한 보내기 정책에 대해 반대운동까지 벌였던 사람이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31살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박정희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며 자신이 얼마나 과격하게 반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방송화면] 1961년 11월11일 박정희 연설

- **박정희 (육성)** :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토의할 작정입니다.





○ 내레이션 : 그리고 11월 11일, 박정희는 일본과 미국의 권력자들을 만나러 떠났다. 박정희가 공항에 내리자 일본 극우파들의 관심은 절정에 달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과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일제 때 만주군관학교에서 천황의 군인들을 양성했던 나구모 장군, 박정희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자막&음성: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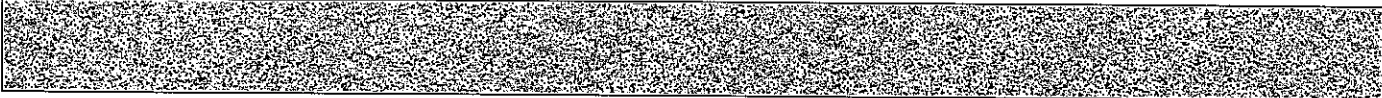
○ 내레이션 : 이걸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 침략을 당했던 한국인에게서 고맙다는 말까지 들다니! 극우파의 대부 기사 노부스케는 박정희를 요정에까지 초대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정희는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 박정희(일본어) : 혁명을 했을 때 일본 명치유신의 지사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명치유신의 지사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 내레이션 : 일본 명치유신의 지사들은 과연 누구일까? 조선 침략의 선봉장 사이고 다카모리, 이토 히로부미, 박정희는 그런 침략들에게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제 일본 극우파들은 확신했다. 친일파 박정희와 손을 잡고 한국을 일본의 경제와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한 일본은 박정희 정권에 검은 돈을 주기 시작했다.

[방송화면] CIA Special Report 1961년부터 65년 까지 박정희의 공화당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6천6백만 달러(현재 약 2조 1천억 원)이다. 한 일회담을 추진해준 대가와 한국에서 특례를 받기 위해 돈을 주었다.

○ 내레이션 : 이제 한국은 대일 무역적자의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된 것이다.





□ Chapter 3. 수출주도형 국가의 탄생 (Birth of Export-Led Nation)

- 내레이선 : 1961년 11월 3일 박정희가 미국에 오기 10일 전 케네디는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켜다. AID 이 조직의 임무는 친미국가 개발전략을 수행하는 것 이었다.

자막&음성: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쟁 지역에 미국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그래서 당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쟁 국가의 국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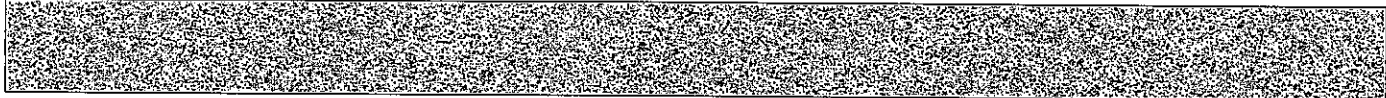
- 내레이선 : 결국은 AID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경제 전문가 부대였던 것이다.
- 내레이선 : 1963년 11월 14일 일본 방문을 마친 박정희가 워싱턴에 도착했다. 케네디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박정희를 밀어줄 생각이었다. 그래서 백악관에 초대까지 해준 것이다. 그런데 회담 도중 박정희는 특별 원조를 요청했다.

자막&음성 : 우리는 경제개발 계획을 작성중이다. 특별안정기금으로 2억5천만 달러를 지원해 달라.

- 내레이선 : 케네디는 내심 당황했다. 이미 그는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달 전 미국 대사가 박정희에게 직접 경고를 보냈다. 당신들이 만든 그 경제개발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 몇몇의 경제학자들이 수작업 했다는 것을 미국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 버거의 말은 정확했다.

자막: 사실 1차 계획안은 통계의 미비와 작성 기술도 문제가 있었다. 승정병 경제기획원 부원장

- 내레이선 : 박정희의 경제 참모조차 허술하게 작성했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그런 경제 계획에 케네디가 특별 원조를 해줄 수는 없었다. 그리





고 실무진 회담에서 AID 처장은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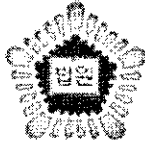
자막: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 내레이션 : 이때부터 미국과 갈등이 시작됐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내정하게 비판했다. 현실을 무시하고 설정한 7.1% 성장률은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수출 전략도 없다. 사실 박정희에게도 수출 전략이 없었던 건 아니다. 토끼털을 깎아 팔고 생선을 많이 잡고 돼지를 키워서 의화를 빌자. 즉, 수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다. 그런 수출확대 전략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은 국민들 돈을 내자로 동원해서 중합계점소 같은 거대 산업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도 시기상조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자신의 경제개발 전략을 바꾸지 않았다.
- 박정희(육성) : (1962년 1월) 연 평균성장률 7.1%나 되는 경제개발 5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고
- 내레이션 : 박정희는 자신만만했다. 자신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그 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막: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5천년 역사는 퇴영과 조잡과 침체의 연쇄사다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 내레이션 : 일제 식민지 키드로 살았던 박정희. 그는 방송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혔다.
- 박정희 (육성) : 과거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의타적이고 사대주의적이었으며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고 극복해 나가겠다는 자주적인 정신이 너무나도 결핍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내레이션 : 그리고 31절이 되자 박정희는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란 거창한 책을 펴냈다. 그런 다음 그는 바로 자신이 최행적인 한국 민족의 구원자이며 경제발전의 영도자임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 내레이션 : 1962년 5월, 증권시장이 파탄이 났다. 박정희의 집권을 위해 그의 조카사위 김종필의 부하들이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상 최대의 주식사기를 친 것이다.

자막: 박정희의 조카사위 김종필은 사상 최대의 주가 조작을 저질러서 2천만에서 3천만 달러(현재 약 9천억 원)를 벌어들였다. Memornadum From NSC To Kennedy

○ 내레이션 : 김형욱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김종필이 끌어모은 돈의 일부는 박정희에게 상납했고 공화당 창당 작업, 야당 교란작전에 쓰였다고 한다. 이것은 걸음마를 떼려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

자막: 증권파동이 벌어진 후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기업들은 주식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 문제들을 완전히 극복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 내레이션 :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박정희는 더 큰 사고를 치버렸다. 박정희는 사전조사도 안 해보고 기존 화폐를 폐기하고 새 화폐를 발행했다. 게다가 예금한 돈까지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하게 했다. 그 때문에 돈의 유통이 멈춰 경제가 마비되며 한국 전체가 대혼란에 빠져버렸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며 버거 대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막 : 믿을 수 없을 만큼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 The Transformation of Korea

○ 내레이션 : 그때 삼성의 이병철 사장이 박정희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화폐개혁의 위험성을 설명해줬다.





음성중독방지

자막: (이건희) 세계적으로 통화개혁은 해만 남았습니다.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 내레이션 : 그러자 박정희는 이렇게 증언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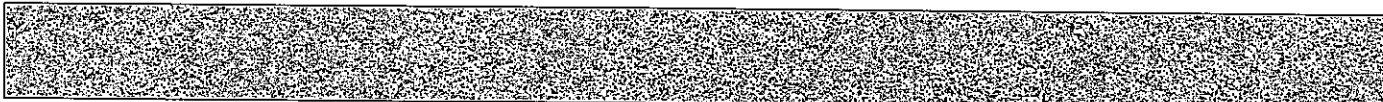
자막: 경제인들 의견도 사전에 들은 걸 그랬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내레이션 : 그때부터 미국도 박정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들은 박정희에 대한 지지 정책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그런 논의까지 벌였다. 이것은 박정희에게 최대의 위기였다. 지하자금 을 동원해 경제개발에 쓰겠다며 화폐 개혁을 했던 건데 막상 저 지르고 보니 지하자금은 몇 푼이 안됐다. 그 대신 경제적 혼란과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전체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추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 내레이션 : 미국은 박정희에게 예금 동결을 해제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건 미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런 요구까지 했다. 박정희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러자 버거는 조용히 말했다.

자막: (버거) 당신이 더 이상 미국의 원조를 원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군. 그 말을 듣자 박정희는 태도를 바꿨다.

○ 내레이션 : 결국 박정희는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 이제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경제정책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의 참모들이 대거 물러나게 됐다.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핵심 참모들도 전부 잘렸다. 그 뒤 새롭게 경제 관료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미국의 뜻에 매우 협조적인 인물들이었다. 새 관료들은 1차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박정희는 당황했다. 이미 진행 중인 계획까지 공격당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처절하게 저항했다. 오히려 개발계획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미국은 전면에서 낚시망의 무기를 빼 들었다. 한국 언론을 통해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음성파일첨부

것이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원조가 끊기면 붕괴하는 나라였다. 이 기사를 본 한국 국민들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박정희. 결국 그는 미국의 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이때부터 신임 경제 관리들이 1차 경제 개발 계획서를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이때 미국은 비밀리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자막: 종합기계제작소 같은 대규모 산업화 전략을 포기하라. 그리고 수출을 중대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라

- 내레이션 : 미국은 인정사정이 없었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비협조적이면 미국은 곧바로 경제 원조 책임자를 한국에서 철수시키며 실행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이 전부 들어간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도를 받는 수출주도형 개발 전략으로 전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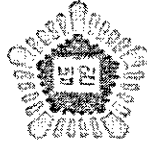
□ Chapter 4. 채찍과 당근 Stick and Carrot

- 내레이션 : 사무엘 버거 대사, 그는 박정희를 좋아했다. 버거는 박정희를 잘 교육시켜 미국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대리인으로 써야 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미국은 어떤 수단으로 박정희를 교육시키려 했던 걸까?

자막: 우리의 채찍과 당근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몇 분야에 진전이 있었다. The Transformation of Korea

- 내레이션 : 그렇다면 채찍 정책은 대체 무엇일까?

[방송화면] 박정희와 킬렌 USOM처장 모습, 서부영화 장면과 함께 편집



(킬렌) 세금 제도들을 개혁하라.

(박정희) : 시행하기 힘들다

(킬렌) : 원조중단

(박정희) : 인건가 시행할게

(킬렌, 채적을 휘두르는 서부영화 주인공) : 당장 해!

(킬렌) : 9개월 동안 원조 중단

(박정희) : 개혁 정책을 시행할게

- 내레이션 : 그 결과 엄청난 세수 증대 효과를 보았다. 그럼 당근 정책은 어떤 식으로 사용했을까? 1962년 화폐개혁의 실패를 기점으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미국. 이제 미국의 다음 목표는 수출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환율 정책을 뜯어고쳐야 했다. 그 당시 한국의 환율은 비정상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들이 1달러짜리 가발을 수출하면 133원 밖에는 못 받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환율을 300원대로 대폭 올릴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가발을 하나 수출하면 곧바로 300원을 벌게 된다. 이익이 두 배로 뿔뿔이 되는 것이다. 그럼 기업들이 수출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게 된다. 결국 환율개혁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수출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었다. 박정희는 환율 개혁에 거부감을 보였다. 수출에는 좋을지 모르나 반대로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달러짜리 물건을 133원에 사다가 300원에 사오게 되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다. 그럼 가난한 서민들의 불만이 커져 박정희의 인기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박정희는 환율개혁에 거부감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은 채적을 쓰지 않았다. 그 대신 환율 안정금이라는 먹음직한 당근을 제시했다. 그리고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1달러 당 255원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다. 사무엘 버저는 이 협상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다.

자막: 박정희는 우리의 부추김을 받아서 물가인상의 위협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환율은 인상됐고 5월부터 안정화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그 결과는 아주 좋았다. 모든 부분에서 생산이 급속히 향상됐다.



출판권역동반

o 내레이션 : 연간 GNP 성장률이 1964년과 1965년에 걸쳐 6%에 달했다. 수출은 1964년 1억 2천만 불에서 1965년 1억 7천만 불에 달했다. 이는 1961년과 대비해볼 때 6배나 많은 것이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며 박정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막&음성: 이런 빌어먹을! 왜 내 결정과 반대로만 가면 수출이 늘어나는 거야?

o 내레이션 : 그런 자책을 했을까? 아니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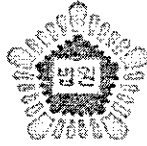
자막&음성: 이제부터 미국 경제 전문가들한테 무릎 꿇고 배워야겠군.

o 내레이션 : 그런 다짐을 했을까? 박정희는 둘 다 아니었다. 그는 기자들을 전부 불러 모았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손가락을 휘두르고 노동자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출품도 한겨리며 부지런히 사정을 찍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자막&음성 : 한국 민족의 갈 길은 본인이 제시한다! 가자! 수출 10억불을 향해!

박정희의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수출을 통해 조국이 무섭게 성장하는 광경을 감탄스럽게 바라보는 한국인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박정희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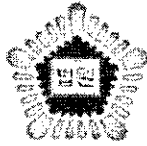
별지 3

〈표 5〉 한미간의 정책논쟁 (1차 경제개발계획 원안에 대한 대립)

	세부 정책	한국의 선호	미국의 비판	정책변화 결과
경제개발 모델	경제정책 기초	확대 성장(재정적자, 통화팽창)	안정성장파 합리화가 전제	합리화 조치와 고속성장의 병행
	정책 이념	개발국가론(국가주도)	신고전주의(시장주도)	시장촉진형 정부주도
	우선 순위	농업과 중공업우선론	기간산업과 경공업 우선론	공업우선과 수출지향
	원조정책	원조 확대와 자율사용	계획별 규모 결정과 사용통제	통제하면서도 경제원조의 중요성 강조
	민주주의	영구적 민정이양을 위한 선개혁	선개발과 안정후 민주개혁	민주원칙을 강조하되 현실주의적 타협
거시경제 운용	성장률	연평균 GNP 성장률 7.1%	과도한 의욕으로 왜곡성장	성장률 하향 조정
	자금조달	5년간 24억달러 도입	내자 외자조달 모두 무리	외자조달 중심으로 전환
	환율	고정환율제와 원화고평가액 유지	현실화(인상) 요구	환율의 현실화(1965실시)
	금리	정책금융 실시와 과도한 금리차	현실화와 통화가치 안정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정책금융 유지
	육성산업	일련쇄철 산업	에너지 및 기계산업	포스코 건설과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발전

“한국의 경제개발과 1960년대 한미관계”, 류상영, 『한국정치학회보 36권 3호』, 239p





방송통신위원회

관계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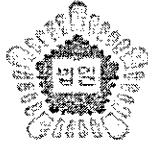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2.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5.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제100조(제재조치 등)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 규정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한 협찬금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통신위원회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④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 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





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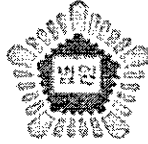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공인인증서용비

정본입니다.

2014. 8. 29.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진화영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